

스트라이크 스트레스 환방에



실력에 맞는 점수관리로 점진적 실력향상 도모

성도GL&솔루윈의 볼링 동호회(회장 이승택 대리, 영업마케팅)는 지난 1999년에 설립, 22명의 회원을 자랑한다. 회원은 아니지만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볼링장을 방문하는 비회원도 22명에 달해 성도 GL&솔루윈의 볼링동호회는 가히 회사의 중심 동호회로 평가받는다. 특히 나이의 많고 적음,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볼링의 특성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 부서에 동호회원이 고루 산재해 있다는 것은 크나 큰 장점이 아닐 수 없다.

이 동호회는 주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회사 근처 볼링장에서 정기모임을 갖는다. 월 1회라고 하면 그리 빈번하게 갖는 모임은 아니지만 외부업무가 많은 영업팀, 기술지원팀의 직원들과 내근업무를 주로 하는 관리부서팀과의 결속력을 볼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훌륭히 키워가고 있다.

스트라이크가 터지기만 하면 같은 레인에서 게임을 하는 회원들뿐만 아니라 옆 레인의 동료들까지 기쁨의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만약 핀을 남기며 아쉬움에 게임을 마감할 지라도 손을 마주치며 동료 간의 정을 돈독히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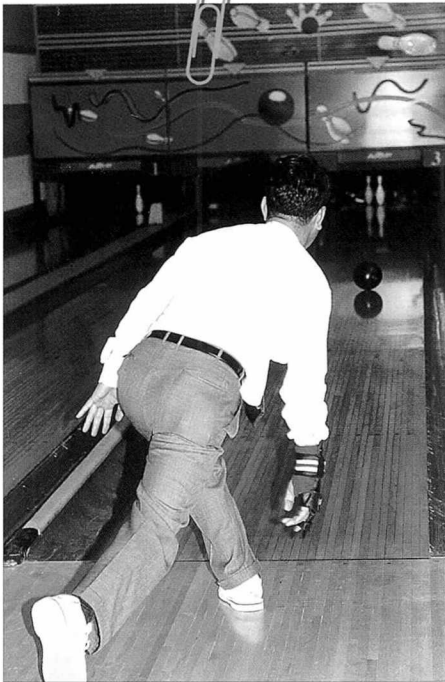
볼링을 좋아해서 함께 한 모임이라는 특성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이를 위해 동호회는 시합에 치중돼 모임이 경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그 것 보다는 각자 실력에 맞는 점수관리를 통해 볼링에 대한 꾸준한 애착과 점진적인 실력향상을 이끄는 것이 이 동호회의 진정한 목표인 셈이다.



볼링장에서 저녁, 게임 후 뒤풀이로 동료애 다져

이 대리는 “동호회 최고 점수 보유자는 전산팀 민병우 차장으로 평균점수 200점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또한 재경팀의 오세창 사원은 폼만 놓고 본다면 프로선수들이 와서 보더라도 감탄할 만하다. 그리고 기술지원팀의 양정범 과장은 스핀의 달인으로 점수를 따지지 않고 스핀만 본다면 예술의 경지에 다다른다”며 각 회원들의 장기에 대해 자랑한 후 “그러나 모두들 열심히 하기에 더욱 보기 좋다”고 덧붙인다.

퇴근 후 볼링장에서 바로 모임을 갖는 관계로 저녁식사는 볼링장에서 피자와 같은 배달음식을 먹는 것으로 대체한다. 저녁으로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것은 시간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게임 중 분위기 전환에도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쁘고 간단하게 저녁식사를 하는 관계로 뒤풀이는 가급적이면 푸짐한 곳에서 즐긴다. 주로 돼지고기 삼겹살 식당을 애용하는데 이곳에 가서는 그 날 모임에 대한 시상, 차후 일정이나 계획에 대한 공지가 이뤄진다. 볼링을 하고 돼지고기 삼겹살과 소주로 뒤풀이를 즐기면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가 봄눈 녹듯 녹아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동료애까지 두터워진다.



◆ 스페어처리를 하고 있는 영업마케팅팀의 손동구 차장



◆ 게임에 앞서 단체사진 한 컷



수준에 맞는 핸디캡 적용...누구나 연말 챔프 도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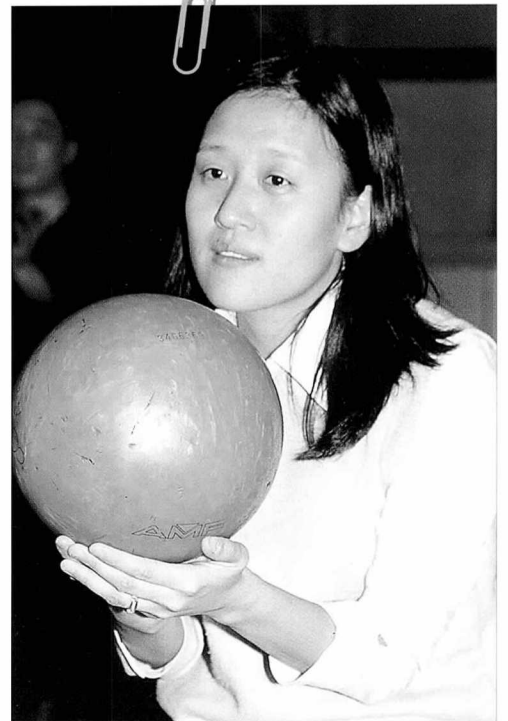
성도GL&솔루윈에서 볼링이 갖는 의미는 사뭇 크다. 매년 12월에서 익년 2월 사이에 연말 볼링 챔프전을 갖는데 이 때는 전 사원들이 참여한다. 꽤나 탐나는 상품들도 많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회원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데 볼링동호회원들의 활약이 눈부신 것도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데 연말 챔프전 운영에는 인간미가 배어있다. 각 선수마다 핸디캡 점수를 적용, 비록 실력이 떨어지더라도 누구나 챔프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최고 수혜자가 바로 현 볼링동호회장 이승택 대리이다. 이 대리는 2001년 연말 챔프전 당시 혜성처럼 나타나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최고 상품이었던 DVD플레이어를 거침없이 획득했다. 이 수상의 속사정이 바로 핸디캡 제도. 그 당시 이 대리의 핸디캡 점수는 무려 80점에 육박했기에 다른 수준급 참가자들도 감히(?) 따라올 수 없었다는 것이 동료회원들의 증언이다. 이후 초급실력에 불과한 이 대리의 상품획득에 충격을 받은 다른 초보자들이 점수를 올리는 것보다는 핸디캡을 관리하는 것에 오히려 더 신경을 쓰는 풍조(?)가 한 때 유행하기도 했다고 한다.



다양한 행사로 볼링 사랑 영원히



◆ 자세를 취하고 있는 재경팀 객해진 대리

성도GL&솔루윈 볼링동호회장 이승택 대리는 “지금 사회에서는 볼링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아쉬움을 토로한 후 “동호회가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향후에는 M.T를 추진, 회원간의 친목도모에 더욱 신경을 써야겠다. 그리고 고객사 직원들을 초청한 볼링 모임을 기획하는 등 좀더 다양한 행사를 가져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나는 볼링을 그다지 잘하는 편은 아니다. 또한 우리 회원들도 엄청 실력이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내 볼링 모임을 통해 다시 한번 개개인이 성도GL&솔루윈 하나의 구성원임을 느끼고 스트라이크 한 방에 모든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리면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작업 능률이 올라가고 보다 나은 내일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볼링 예찬론을 늘어났다.

〈조갑준 기자〉